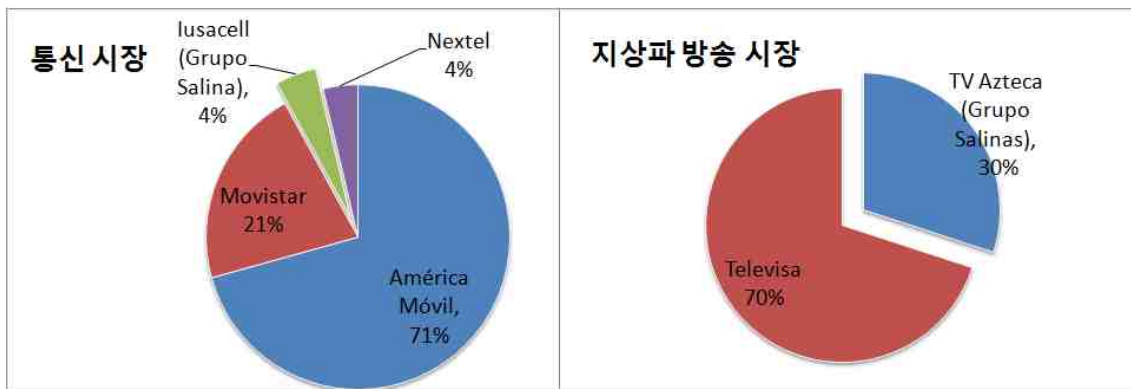


## CFC, 통신시장 독점경쟁 제동

- 멕시코 연방경쟁위원회 (Federal Competition Commission; CFC)는 지난 2월 1일 국내 최대 방송사인 Televisa의 국내 소규모 통신사 Iusacell의 지분 50% (16억 달러 규모) 매입안 승인 요청을 기각함.
  - CFC는 Iusacell사의 지분 매각이 Televisa와 Grupo Salinas의 방송 시장에서의 담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이유로 듦.
  - 현재 멕시코 통신 시장의 4.4%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Iusacell의 지분 50%는 Grupo Salinas가 소유하고 있음.
    - TV Azteca 또한 멕시코 TV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Grupo Salinas 소유의 기업임.

그림. 멕시코 통신 및 방송 부문 시장 집중도 비율



- CFC의 결정으로 멕시코의 지상파 방송 업체 간의 잠재적 담합 가능성은 줄일 수 있었지만, 통신 시장에서 América Móvil사의 독점을 제지하려는 노력은 실패함<sup>1)</sup>.
  - 정부는 Televisa의 지분 매입이 통신시장에 경쟁을 가져올 수 있는 유력한 방법으로 기대해 이를 지지한 바 있음.
  - 통신시장의 독점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후생 감소 문제는 OECD 역시 주목한 바 있음. (OECD Review of Telecommunication Policy and Regulation in Mexico<sup>2)</sup>).
- 기술적으로 하나의 케이블을 통해 TV, 인터넷, 통신의 세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1) 유선 전화 시장의 80%, 이동 통신 시장의 70% 점유.

2) 본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 국민들이 2005-2009년의 기간 동안 매년 130억 달러씩 América Móvil에 과다한 통신료를 지불해왔음. 또한 34개 OECD국가들 중에서 멕시코의 유선, 이동통신, 브로드밴드 시장의 보급률(인구 100명당 이용자수) 순위는 각각 34위, 33위, 32위에 그침. 통신 분야 1인당 투자금액은 최하위인 34위인 반면, 매출 이익은 OECD평균의 2배를 상회함. 이러한 독점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멕시코 정부의 규제 개혁 및 새로운 정책 실행을 제안하고 있음.

제공하는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 (triple-play service)가 가능해짐에 따라 멕시코 기업들의 독점 경쟁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됨.

- 현 정부는 통신 분야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기업들의 통신 인프라 설치 지원, 무선 주파수대 경매 등의 안을 내놓았으나, 관계자들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América Móvil이 무선 주파수대를 독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함.

〈출처: Oxford Analytica, OECD, ABC News, The Economist 등〉

(이시은 연구원)